

데스크 시각

반환점 앞둔 민선 6기 시·도지사 성적표는?



장필수 사회부장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다 됐다. 2014년 7월에 닷을 올렸으니 이달 말이면 정확히 반환점을 틀게 된다.

현재로서 이들의 성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량화해 내놓은 곳은 없다. 있다고 해도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지 관리가 순위를 좌우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정책별로 속내를 들여다보면 윤 시장과 이 지사의 성적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아쉬운 인사잡음·청렴도 하위

윤장현 시장의 성과를 꼽는다면 취임 직후부터 실전해 온 낮은 행보로 '시민시장'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구축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치른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단연 돋보이는 성과로 꼽을 만하다. 메르스 확산·북한 선수단 불참·기상 악화라는 '성리플 악재'에도 저비용·고효율 대회로 성공리에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투자 유치로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하지만 한계도 노출했다. 가장 큰 오점은 인사잡음이다. 취임 직후 불거져 나온 측근 채용부터 조정 능력에서 한계를 보인 정무보좌진, 비선 실세 개입, 정책자문관의 월권 등은 2년 내내 윤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이낙연 전남 지사는 윤 시장에 비해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취임 당시 내세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는 도정 목표를 일차리 창출 전국 1위라는 성과로 증명했다.

한전과 함께 에너지밸리 조성을 추진하면서 1년6개월 만에 에너지 관련 기업 133개를 유치하는 성과도 이뤘다. 브랜드 시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농어촌 교통 약자의 발이 돼 준 '100원 택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

고 있다.

그렇지만 청렴도 향상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인 16위를 기록한 점은 빼어난 대목이다.

후반기 가시적인 성과 있어야

민선 6기 윤장현호와 이낙연호의 순환여부는 후반기에 결정될 것이다. 각각 현안 사업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미뤄 온 광주공항 이전 및 무안공항 활성화 등 민감한 현안에서 상생의 묘수를 찾아야 한다.

20대 총선으로 '1뿔 독주 체제'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2뿔 체제'로 바뀐 지역 정치 지형을 활용해 목표를 이뤘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정치력과 함께 안정된 행정력도 보여 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bungy@kwangju.co.kr

은펜클럽

쿠션 당구와 메타포



이병우 단국대 천안캠퍼스 교수

없다. 당연히 공감아 되지 않는다. 은유의 본질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쿠션 당구와 메타포의 공통점을 꼽자면 이렇다. 첫째, 빗대거나 비유하면 효과가 좋다. 둘째, 관계의 관점에서 본다. 셋째, 고수들이 사용한다. 시인은 메타포의 고수들이다. 윌리엄 워드스워스는 은유에 대해 "달지 않은 것에서 달은 것을 찾아내는 기쁨"이라고 했고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는 "다른 누군가의 내부에 자신과 유사한 상태의 존재를 세우는 것이다"고 말했다.

일류 시인과 이류 시인의 차이는 '사랑'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한다.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것은 이류 시인이나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일본 NHK 방송국에서는 아나운서 훈련을 시킬 때, 음식 맛을 보고 "맛있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맛있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가급적 하지 말도록 권유한다. "나비 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는 무하마드 알리의 말은 얼마나 강력한가.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란 소설을 보면 메타포의 효용에 대해 잘 그려져 있다. 이 소설을 원점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일 포스티노(Il Postino)'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960 ~ 1970년대의 칠레이다. 민주화와 반민주가 충돌하는 시기이다. 시골의 평범한 청년인 마리오가 시골생활을 하는 네루다의 전담 우편배달부가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메타포의 위력을 보여주는 한 대목을 소개하자면 이렇다. 시골 청년은 짝사랑하는 처녀가 있었지만 말도 못 붙이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런 그가 시인 네루다에게 메타포를 배운 다음 이를 사용해서 처녀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를 두고 "시골 카페 촌년을

베네치아 공주로 여기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네루다에게 따지는 장면이 나온다.

유명한 뉴욕의 걸인 이야기도 자주 등장하는 사례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라는 걸인의 팻말을 본 시인이 그 문구를 어떻게 바꿔줬다. "나는 봄이 와도 꽃을 볼 수 없습니다." 수일이 몇 배로 늘었다고 한다. 메타포가 가져오는 공감의 힘이다.

반면에 어려운 점도 있다. 쉽지 않다는 것이다. 쿠션 당구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듯이 메타포를 사용하려면 훈육과 연습, 학습이 필요하다. 미숙하게 사용하면 정확도가 떨어져서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3쿠션 당구와 메타포에서 배울 점이 많다. 둘 다 관찰과 창조, 과정을 거친다. 일종의 관계적 발생이다. 3쿠션 당구를 치면서 메타포를 생각해 보는 것도 '관계적 발생'을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을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심는 코너입니다.

기고

브렉시트(Brexit)와 광주경제



김윤석 U대회 사무총장·전 광주시경제부시장

도 없고 이동제한도 없는 하나의 경제체 단일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국민은 지난 6월24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EU공동체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는, 경제적으로 별도의 독립성을 갖겠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영국으로 가정하고 16개 시도를 EU회원국으로 가정해보자. 제주도가 별도의 경제적 주권을 행사한다면, 제주도 특산품인 감귤을 서울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으로 반출(수출)할 때 제주 감귤농가는 다른 16개 시도에 별도의 세금(관세)을 내야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자제품 등 상품을 반입(수입)할 때에도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사람이 이동할 때에도 허가(입국비자)를 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그만큼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상품가격이 상승하여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영국이 EU를 떠나 독자적 경제행태를 유지하면서, 금융자금이 이동하거나 상품을 사고파는 교역을 할 때 세금

과 거래하듯 수입할 때는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 할 때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제반비용이 상승하여 대외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생산과 고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영국의 화폐인 파운드화의 수요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연일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 일본 엔화, 금으로 수요가 몰려 화폐가치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원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그 가치가 하락 할 수 있다.

또한 EU측면에서 보면 시장의 규모가 영국 GDP(세계 5위 수준)만큼 작아지고 거래도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경기침체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경제가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 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심한 우리나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우리 광주지역의 경제구조는 지역내 총생산(GRDP)의 절반가량이 몇 개의 수출 대기업에 차지하고 있다. 적금의 브렉시트

와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맞을 경우 위기 극복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 비용을 절감하여 경제위기 상황의 충격을 흡수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에너지 신사업, 드론산업, 바이오 산업 등 새로운 전략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고, 신산업과 관련된 지역의 교육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산업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전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이 제조업에 비하여 용이한 서비스산업 성장에 골몰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전통적으로 금융, 관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지역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스포츠음식 복합 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하는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계 및 정치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깊은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대기업들 직장어린이집 설치 외면해서야

맛벌이가 많은 요즘 직장에 나가는 엄마들인 '워킹맘'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자녀와 떨어져 있어 야 하는 근무시간이면 아이 생각에 걱정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이 같은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법에는 상시 근로자가 500명이 넘거나 300명 이상의 여성이 항상 근무하는 기업에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해서 보육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의무 대상인 상당수 기업이 수급하기 어려운 이유로 직장어린이집 개설을 미루고 있다. 당국이 조지한 바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따른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수년째 미루고 있는 곳은 광주·전남에서 8개 사업장이나 됐다. 이 회사들은 이름만 들어도 금세 알 수 있는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이다. 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하는 기업들이 둘러대는 변명은 한결같이 공색하기만

하다. 대부분 '설치 비용과 운영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인데 그 부담이 당기 순이익에 비해 과연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다. 또 '이용 대상 부족' 때문에 개설하지 않겠다는 회사도 있다고 하는 데 근로자의 육아 실태를 제대로 조사라도 해 보고 하는 말인지 의문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여성들의 근로 장려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신설 비용과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드는 돈보다 훨씬 가벼울 것으로 보이는 이행강제금으로 어쩔쩔 넘어가려 한다면 여성 근로자의 고충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근로자의 노동력은 기업 운영의 기본 요소다. 노동력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이윤 창출과 직결된다는 점을 기업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AI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 철저히 하라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한 매몰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전염병과 수질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전남도가 제출한 'AI 매몰지 사후관리 현황'에 따르면 전남도를 비롯한 각 시군은 지난 2년 동안 사후 관리 의무 항목인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15개 시군 매몰지 154곳 가운데 주변 수질조사에 이뤄진 곳은 순천 낙안으로 단 한 곳이 불과했다. 특히 주변에 민가가 없고 관정도 없이 수질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15곳, 매립 방식에 따라 조사 대상이 아닌 13곳을 제외한 125곳에 대한 수질조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처분된 매몰 지역의 상당수 현장에서는 가금류의 혈액이 섞인 침출수가 땅위로 흘러나오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해충이 발생되고, 침출수가 땅속

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사체 속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잠재적으로 잠복해 있다가 지하수나 먼지 등을 통해 사람에게까지 오염시킬 개연성도 제기된다.

그런데도 전남도와 각 시군은 지하수 관정 수질조사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몰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이미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고 있는지도조차 알 수 없어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전남도는 지난날 31일 뒤늦게 사후야방문 격으로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를 하도록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다음 달 말까지 검사를 의뢰키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질 또는 토양환경측정, 하천 수 수질, 악취 조사는 조사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어 문제다. 전국적으로도 매몰지역 침출수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남도는 장마철을 맞아 모든 매몰지에 대한 오염 가능성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며칠 전 서울 출장길, 지하철 종각역 입구에서 잡지 '빅이슈' 판매원을 만났다. 오래 전 TV 다큐를 통해 접했던 잡지라 반가웠다. 피약벌 아래 선 그는 맘을 뽐뽐 흘리며 사람들에게 잡지를 소개하고 있었다.

그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잡지를 구입했다. '빅이슈'를 판매하는 이들은 모두 홀리스(노숙자)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수줍은 듯한 모습을 보인 그는 '빅이슈'라는 잡지에 대해, 역 앞에 서서 잡지를 판매하는 것

잡지 '빅이슈'

'빅이슈'는 1991년 영국 전환경 기업 '더 보디슈' 창업자인 아니타 로더의 남편 고든 로더가 홀리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창간했다. 폴 매카트니, 데이비드 베컴, 조안 롤링 등 유명인들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지며 현재 10개국에서 14종이 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숙인 봉사단체 '거리의 천사들'이 중심이 돼 2010년 창간했다. 이효리·안성기 등이 무료 표지 모델로 나서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격주로 발행되는 '빅이슈' 가격은 5000원. 이 가운데 2500원이 판매원에

게 돌아간다. 꾸준히 저축하면서 6개월 이상 판매 경력이 있으면 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데 지금까지 9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번에 구입한 '빅이슈 134호'엔 강남역 10번 출구 판매원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그가 판매원이 된 것은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 계기가 됐다. 모은 돈을 모두 차 수리비로 내고 난 후 정신을 차려 보니 홀리스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3년을 보냈다는 것이다. '빅이슈' 판매원이 된 그는 처음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스트스립기도 했지만 '당당하게' 잡지를 판매하고 있다.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잡지를 구입해 주는 이들이 있어 행복했다. 동전으로 5000원을 모아 책을 사거나 사람, 3개월간 오후 6시23분이면 꼭 가타나 잡지를 구입하던 사람 등.

'빅이슈'는 현재 서울·부산·대구에서 잡지를 판매하는데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당신이 읽는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판매원이 입고 있던 붉은 조끼에 적힌 글귀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